

(일) (문) (일) (답)

문 : 기 발표된 배합사료가격 상한선 철폐가 양축가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또 양계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김광원(유경사료 생산부장) : 배합사료가격상한선 철폐를 잠깐 것으로 본다. 71년~72년도에 배합사료공장들이 형태를 갖춘 본격적인 생산을 했는데 그때부터 배합사료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겼으면 사료공장이 지금처럼 날림이 안되었을 것이며 부로일터업자들이 도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사료공장간의 경쟁이 본격화되어 사료공장은 좀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사양가는 사료질의 향상으로 유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양축가들은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질이 좋은 사료를 먹이자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사료원료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사료가격만 올리고 품질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번 상한제 철폐로 양축가는 오히려 품질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소규모 양축가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대규모양축가에게는 오히려 유리해 지리라고 본다.

사료공장의 입장에선 경쟁이 오게되고 질, 가격,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신경을 써야하며 가격경쟁이 심해지면 이윤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윤이 떨어지면 얼마정도의 물량을 생산하지 않고서는 사료공장의 수지가 곤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료공장도 대규모업체가 유리할 것은 당연하다. 75년도에는 축산물에 대한 경기회복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할 것으로 보아 사료공장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서는 경영면에 있어 과거와 같을 것이다.

양계업자들(채란업체)의 경우 과거3~4년간은 경영의 불실로 쓰러진 사람이 많은 반면에 1만수이상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한 사

람들은 호경기를 누렸다고 본다. 이러한 실력있는 양계업자들은 앞으로 사료공장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앞으로 양계업(채란계)은 사료에 관계없이 어느정도 수년간 안정될 것으로 본다. 축산물의 소비성향을 볼때 양계산물은 가장 안정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소비가 늘 것이다. 아무리 불경기라해도 소비성향은 상승할 것이다. 양계업을 하는 사람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보유숫자를 언제나 확보해 놓으면 1년 중 3개월은 적자를 보더라도 경기가 좋을 때 후자폭이 높기때문에 년중 전체적인 흑자경영을 할 수 있게되고 반면 규모가 적은 곳에서는 시기를 선택하여 사육하기 때문에 시세 흐름의 변동에 따라 타격을 받게되어 오히려 큰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계업자에게 바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든 호경기가 있든 자기분수에 맞게 착실하게만 경영을 한다면 좋은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김수문 기자>

문 :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배합사료가격 조정해제와 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의 상한제 철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석(퓨리나코리아 사료<주> 영업부장) : 우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주신 농수산부축산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의 사료가격과 우육 및 돈육가격 상한제 철폐를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매우 의의가 깊다고 본다.

먼저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축산의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대 중반까지는 주곡농업에 의한 부업형태의 유축농업이었고 60년대 중반기 부터는 전업축산이라 할 수 있으며 70년대에야 비로소 기업축산으로의 전망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엄밀하

게 따져보면 사실 우리나라에는 축산다운 축산 다시말해 산업으로서의 축산이 없었다고 본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축산의 경제부문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축산을 산업적으로 할만한 여건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사료가격 자유화와 현행 육류협정가의 폐지 및 등급제에 의한 자율적 차등가격제로 뺏어야 했다. 물론 유축농업의 상태에서 축산으로의 기반을 다지고 사료공업 육성을 위해 가격사정제를 실시한 것이 그 목적이었겠지만 이제는 보다 큰 발전을 위하여 자율적인 경영에 의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기업축산으로의 도약은 사료공업이 그 본연의 사업을 다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으며 따라서 사료공업이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급선무였었다.

이제 사료가격사정제 철폐와 육류가격자유화가 실시됨으로써 축산업에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본다. 사료공업은 자체수익과 양축가의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여야만 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 누가 자기 제품을 더 싸게 판매하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사양가의 수익을 보다 많이 올리는 데 기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사료공업은 이런 면에서 건전한 경쟁을 하여야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정부에 좀더 바라고 싶다면 부산물 배정제도를 철폐하여 자율화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한다. 아무튼 사료는 있었지만 사료공장은 부재했던 현상에서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김종섭 기자>

(일) = (문) = (일) = (답)

김수의과 약품상사

가축 약품 전문 취급처

- ◎ 에그믹스ST ◎ 가금출
- ◎ 피 믹 스 ◎ 료세논
- ◎ 카 우 믹 스 ◎ 보나솔

경북 대구시 중구 봉산동 180 - 8
전화 대구 5 - 2100, 5 - 3100

